농업·농촌 발전 방향 모색

쌀시장 격리물량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

전북농협, 이원택 의원과
신년 농정간담회 열어

전북농협은 17일 농협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농협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정 간담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7일 농협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농협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과 농협중앙회 김원철 이사(현 부안농협 조합장)를 비롯한 시·군대표 지역 농·축협조합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및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기한 연장 ▲고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 ▲쌀시장 격리물량 확대 및 수급안정제도 도입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힘써주시는 이원택 의원과 관내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전북농협은 6대 부문, 20대 핵심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해 전북도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논의한 사항뿐만아니라 전국의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경향을 반영해 개발한 심비디움을 18일 완주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평가회에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대형 난(蘭), 실내에서 관리하기 쉽게

농진청, 오늘 심비디움 평가회… 소비경향 반영 소형화

최근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소형 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난 시장에서도 작은 품종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새로운 경향을 반영해 개발한 심비디움을 오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 평가회에서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일 심비디움 대형종은 행사용이나 개원 기념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크기가 80cm 이상에 달해 좁은 사무실 공간이나 집안에 들여 놓기에는 다소 큰 느낌이 든다. 이에 최근 트렌드에 맞춰 이번 평가회에서는 대형 이미지를 벗은 아담한 소형종과 꽃꽂이에 안성맞춤인 절화용(자른꽃) 심비디움 20여 품종과 계통을 소개한다.

그중 대표적으로 꽃색이 독특한 소형종 '루비볼' 품종은 생육이 강하다. 잎이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아 고루 아름답고 크기가 작아 농가에서 단위 면적당 재배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분홍색 꽃이 화사한 '해피데이' 품종은 꽃꽂이에 잘 어울린다. 꽃이 잘 피고 더위에 강해 여름철 고온기 어린 묘의 생육 피해가 적은 장점이 있다. 이어서 새로 개발한 '원교 F1-79' 계통은 짧은 꽃대에 연분홍색의 작은 꽃들이 아기자기하게 핀 소형종으로 꽃수가 많고 꽃대가 잘 생겨난다. 크기가 대형종의 2분의 1 정도인 40cm 내외로 작아 관리가 수월하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다양한 소비층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원교 F1-80'은 연두색 꽃이 피는 절화용 계통이다. 생육이 강하고 꽃수가 많아 풍성하다. 꽃대가 길고 곧으며 절화 수명이 30일 정도로 길어 절화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진청 화훼과에서는 2002년 '뷰티프린세스'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58품종의 심비디움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보급해왔다. 현재 보급률은 20.3%에 이르며, 이번 평가회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온 계통은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선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양승호 씨(충남 공주시)는 "국산 심비디움은 더위에 잘 견뎌 고온기에 꽃이 적게 떨어지고 재배가 수월하다"며 "초반에는 품종 인지도가 낮았지만, 지금은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과장은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춰 다양한 심비디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묘 생산 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골심지 생산 비중 80%까지 확대

전주페이퍼, 이달부터 본격 생산

전주페이퍼(대표 장만천)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원지 생산 확대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 이로써 전주페이퍼는 전체 생산지종에서 골심지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며, 연간 총 100만 톤의 생산량을 갖게 됐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존 신문용지 생산 설비를 골심지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개조해 골심지 생산량 확대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0년에는 운영 혁신 활동인 'TOP21'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추가 설비 투자를 단행해 연간 20만 톤의 골심지 생산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단일 공장으로 국내 최대의 골판지 원지 생산 기업으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최근 대두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전력 및 스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감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를 전주페이퍼와 계열사인 전주원파워 공장에 구축하고 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전주페이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올해는 전주페이퍼가 골판지 기업으로써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LX,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업인 수수료 30%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인터넷(baro.lx.or.kr), 모바일앱 랜디-i를 통해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도내 중기 애로사항 논의

중기중앙회, 김경만 의원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7일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김경만 중기특위위원장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조합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오늘 전북 중소기업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특위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주민번호를 998377- 1233119라고 정했다"며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창출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만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최대희 기자

올해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

바이오진흥원, 세포 효능평가 지표성분 정량분석 지원 등
내달 11일까지 신청접수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022년도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기술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는 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참여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도내기업에 직접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2021년에는 (주)그린스토어, (주)케비젠 등 총 23개의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지표성분 정량분석, 기능성 스크리닝 분석, 시제품 생산 등의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16개의 제품이 산업화되어 약 6.1억원의 직간접 매출 창출과 32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기술지원 지원분야는 ▲기능성 스크리닝 및 세포 효능평가 지원(효소실험, 세포실험 등을 통한 in vitro 효능평가) ▲지표성분 분석법 정립 및 정량분석 지원(지표성분의 분석법 확립 및 정량평가) ▲동물수준 비임상 효능평가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지원(동물모델을 이용한 기능성·유효성 평가지원, 개발소재 및 제품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분석(동물시험 연계)) ▲시제품 생산지원(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GMP 생산) ▲간이독성 평가 지원(개발 소재 및 제품의 간이독성 평가 지원(제브라피쉬 활용)) ▲품질분석 지원(기능성 소재 등의 지표성분, 기능성물질 정량분석, 미생물, 중금속 등 품질분석) 등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기업 중 미생물 유래 효소,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기능성소재를 활용해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nz.re.kr)와 주관 및 참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효소기반 기능성소재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북형 바이오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남원사회적경제협의회 설 명절 특별기획전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사회적경제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도시 남원"이라는 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한층 다양한 선물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두루 참여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우리 지역 농산물로 생산한 한과, 기름류, 추어탕, 김부각 등 23종 선물세트를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오는 20일 시청 1층 로비에서 현장 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세계시장 선도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2017년 이후 29개사가 지정됐으며 금년에는 9개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마케팅,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강소기업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교역조건 악화 상황에도 눈에 띄는 수출성장성을 갖춘 지역기업이 많았다"며 "이러한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 후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간호사 인턴십과정 수료식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간호의료 수료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예수병원 간호사 인턴십과정 수료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수료식은 정선범 원목실장의 기도와 함선희 간호국장의 인사말씀, 김철승 병원장의 축사와 수료증 수여로 진행됐으며, 김철승 병원장은 "이번 예수병원 간호사 인턴십과정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선배 간호사들에게 존경심을 갖는 시간, 환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된다"며 "이후 예수병원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